2026
논리논술
megastudy
장진석 논술

step 1

기초부터 시작하는 논리논술의 첫걸음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의 [논리논술 1]

이제 쿵!치!딱! 흐르는 비트 위로
내 삶의 고통을 잘근잘근 씹어 뱉으며
또다시 동이 트면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리.
이리 오너라 이놈의 세상아~!
어차피 행복이란 건 수많은 NG 끝에 얻는 한 컷...
- 리쌍 Rush

논리의 기초 1

유형 1 삼단논법

- **삼단논법이 적용되는 문제 유형**

  "A를 바탕으로 B를 [논증/설명/옹호/비판/반박/평가]하시오."

▮삼단논법▮ 기본 유형 ① P → Q : 논증 / 설명 / 옹호

대전제 : 모든 사람은 죽는다. ⇨ 일반적 원리, 원칙, 법칙

소전제 :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 구체적 사례, 사실

결 론 : 소크라테스는 ________. ⇨ 구체적 결과

소크라테스는

▮삼단논법▮ 기본 유형 ② P → ~Q : 비판 / 반박

대전제 : 오직 사람만이 이성적이다.(= 모든 이성적인 것은 사람이다)

소전제 : AI는 사람이 아니다.

결 론 : AI는 ________________.

AI는

▌삼단논법▐ 연습 문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선한 마음은 4단(端)으로 설명할 수 있다. 4단(端)은 실마리의 뜻으로,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네 가지 마음씨를 말한다.

- 측은지심(惻隱之心) : 인(仁)에서 우러나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즉 곤경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 수오지심(羞惡之心) : 의(義)에서 우러나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즉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 사양지심(辭讓之心) : 예(禮)에서 우러나는 사양하는 마음, 즉 남을 공경하고 사양하는 마음
- 시비지심(是非之心) : 지(智)에서 우러나는 시비를 따지려는 마음,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

(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성악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감성적(感性的)인 욕망에 주목하고, 그것을 방임해 두면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수양은 사람에게 잠재해 있는 것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가르침이나 예의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쌓아올려야 한다고 하였다.

(다) 목적론적 윤리학에서는 최고 선(善)인 행복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덕(德)을 그 선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덕은 선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선을 구성하는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덕이 실천 활동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실천은 그 활동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이 그 활동을 통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인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활동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실현하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의 연관성이 없을 때는 덕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맥킨타이어는 실천에서 공동체성이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본다.

[사례 1] 보호자 없는 4~5살배기 어린 아이가 바닷가에서 혼자 거센 파도와 놀고 있습니다. 그걸 본 향단이는 '아이구, 저러다 물에 휩쓸리면 어떡하려고 애가 혼자서...' 하면서 다가가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례 2] 연쇄살인범 이몽룡은 마지막 재판의 최후 변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비가 오는 밤이면 살인 충동을 느낍니다. 그날도 비가 왔고, 나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죽일 때마다 진정한 쾌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죽어야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이 할 일을 내가 대신 한 것뿐입니다."

[사례 3] 보호자 없는 4~5살배기 어린 아이가 바닷가에서 혼자 거센 파도와 놀고 있습니다. 그걸 본 방자는 '아이구, 저러다 물에 휩쓸리면 어떡하려고 애가 혼자서...' 하면서 멀리서 구경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삼단논법▐ 답안 작성 방법 결대소결

❶ 결→대→소→(결)	• 두괄식, 양괄식 구성 • 가장 기본적 구조 • 글자 수가 짧은 문제에서 주로 사용
❷ 결→소→대→(결)	• 두괄식, 양괄식 구성 • 소전제(사례)에 대한 반박의 형식인 경우 활용 가능 • 글자 수가 짧은 문제에서 주로 사용
❸ 대→소→결	• 미괄식 구성 • 분량을 채우기는 좋으나 단순 요약처럼 보이거나 논점 일탈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함
❹ 소→대→결	• 미괄식 구성 • 소전제로 문학 작품이나 도표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 활용 가능

예제 1 (가)의 입장으로 [사례 1]의 향단이를 평가하시오.

향단이는	(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　　　　) 사람이다.

• **기본 답안**

100

140

• **늘려 쓰기**

100

200

300

예제 2 (가)의 입장으로 [사례 3]의 방자를 평가하시오.

방자는	(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 ) 사람이다.

• **기본 답안**

100

140

• **늘려 쓰기**

100

200

300

예제 3 **(다)의 입장으로 [사례 1]의 향단이를 평가하시오.**

향단이는	**(다)의 입장으로 본다면** ( ) 사람이다.

• 기본 답안

100

140

• 늘려 쓰기

100

200

300

예제 4 (다)의 입장으로 [사례 3]의 방자를 평가하시오.

방자는	(다)의 입장으로 본다면 ( ) 사람이다.

- **기본 답안**

100

140

- **늘려 쓰기**

100

200

300

예제 5 (가)의 입장으로 [사례 2]의 이몽룡을 평가하시오.

이몽룡은	(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　　　) 사람이다.

- **기본 답안**

100

140

- **늘려 쓰기**

100

200

300

예제 6 (나)의 입장으로 [사례 2]의 이몽룡을 평가하시오.

이몽룡은	(나)의 입장으로 본다면 (　　　) 사람이다.

• **기본 답안**

100

140

• **늘려 쓰기**

100

200

300

예제 7 (다)의 입장으로 [사례 2]의 이몽룡을 평가하시오.

이몽룡은	(다)의 입장으로 본다면 ( ) 사람이다.

• **기본 답안**

100

140

• **늘려 쓰기**

100

200

300

2강 논리의 기초 2

유형 2 비교

- **비교의 원리**

  공통 범주 ⇒ 대립적 차이 or 정도의 차이 ⇒ 개념어로 일반화

기 준	짜장면	짬뽕	볶음밥

▌비교문제▐ 답안 작성 방법 공기차요

❶ 공통점	• 동일한 범주만이 비교 가능
❷ 비교기준	• 문제 요구조건이나 글자 수에 따라 공통점과 묶어서 쓰는 것도 가능
❸ 차이점	• 대립적 차이 or 정도의 차이 ⇒ 개념어로 일반화
❹ 제시문 요약	• 문제 요구조건에 따라 분량 조절 • 문제 요구조건이나 글자 수에 따라 차이점과 묶어서 쓰는 것도 가능

예제 1 **짜장면과 짬뽕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공 짜장면과 짬뽕은 모두 면으로 만든 중국 음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 하지만, 국물의 유무에 따라 두 음식은 차이가 있다.
차 짜장면은 국물이 없는 반면, 짬뽕은 국물이 있다.
요 (짜장면은 블라블라~ 반면, 짬뽕은 울라울라~)

예제 2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동에 관한 시각의 차이를 밝히시오.**

예제 3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논지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

유형 3 비판

● **비판의 원리**

대립적 논점 중 우월한 차이를 전제로 P→~Q 삼단논법 논리 활용

▌비판문제▐ 답안 작성 방법 결대소결

❶ 결론	• 두괄식 구성
❷ 대전제	• 일반적 원리, 원칙, 기준 제시
+ 역접 접속어 사용 : 그러나, 하지만, 반면 등	
❸ 소전제	• 대전제와 상반되는 쟁점을 서술
❹ (결론)	• 양괄식 구성 / 분량에 따라 조절

▌비교를 전제로 비판 논리 만들기

① 짜장 ⇨(비판) 짬뽕

② 짬뽕 ⇨(비판) 짜장

예제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예제 2 제시문 [가]와 [나]는 기술에 관한 상이한 관점을 드러내는 글들이다.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예제 3 (나)의 주장은 SBS가 영상의 재전송을 통해 공동중계 하는 것이 사회적 의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주장을 (가)의 정보를 바탕으로 반박하시오.

▌비교 · 비판 연습 문제

기 준	향단이	이몽룡	방자

※ 문제가 달라보여도 논술 문제의 출제 원리는 같다.

문제 ① :

문제 ② :

문제 ③ :

문제 ④ :

예제 1 향단이의 입장에서 방자를 비판하시오.

예제 2 향단이의 입장에서 이몽룡을 비판하시오.

▌삼단논법 비판하기 ⇨ 전제뒤집기 / 논증의 오류 점검

예제 1 **대전제 :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　론 :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예제 2 **대전제 :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소전제 : 비둘기는 새다.

결　론 : 비둘기는 날 수 있다.

예제 3 **대전제 :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소전제 : 타조는 새다.

결　론 : 타조는 날 수 있다.

예제 4 **대전제 : 날 수 있는 모든 것은 새다.**

소전제 : 타조는 날 수 없다.

결　론 : 타조는 새가 아니다.

더 배우기

▌전건 긍정

전건(조건)이 참임을
확인하여 후건(결과)이
참임을 도출하는
논리적 추론 방식

$P \rightarrow Q$

(P가 참이면 Q가 참이다)

"만약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가 온다.
따라서 땅이 젖는다.

▌후건 긍정

후건(결과)이 참임을
확인하여 전건(조건)이
참임을 도출하려는
논리적 오류

$P \rightarrow Q$

(P가 참이면 Q가 참이고,
Q가 참이라면, P도 참)

"만약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었다.
따라서 비가 왔다."

⇒ **오류!**
다른 이유로 땅이
젖을 수도 있기 때문

▌후건 부정

후건이 거짓임을 근거로
전건이 거짓이라고
결론짓는 **논리적 오류**

$P \rightarrow Q$

(P가 참이면 Q가 참이다.
Q가 거짓이다
따라서 P도 거짓이다.)

"만약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가 오지
않았다."

⇒ **오류!**
땅이 젖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

논리의 기초 3

유형 4 해결책•대안제시

● 해결책◦대안제시의 원리

1. 제시문에 답이 있다.
2. 재구성이 핵심이다.
3. 지구를 구할 창의력은 필요 없다.
4. 원인을 제거할 때는 근본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5. 답안이 수미상응의 완결된 구조를 갖춰야 한다.

▌해결책◦대안제시 문제▐ 답안 작성 방법 문원제결

❶ 문제상황	• 제시문이나 문제에 제시됨 → 요약 정리
❷ 원인분석	• 인과 관계 파악 (제시문 or 추론)
❸ 원인제거=해결책	• 상식적이고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책 제시
❹ 예상결과	• 수미상응 (완결성) → 문제 상황이 해결된 상태 제시

예제 제시문 [가]와 [나]에서 기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여러 기능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서 말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극복하고 시민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500자~550자)

⇩

① 문제상황 :

② 원인분석 :

③ 원인제거 :

④ 예상결과 :

유형 5 자신의 견해

- **자신의 견해제시의 원리**

1. 진짜 주관적인 자신의 견해를 쓰면 안 된다.
2. 주어진 제시문과 문제에 맞춰 특정 입장을 선택하고 근거를 들어 뒷받침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해야 한다.
   [한 입장 선택 ⇨ 다른 입장 비판] or [제 3의 견해]
3. 문제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동일하다. (삼단논법 / 비교 / 해결책 제시 / 예상반론-재반론 / 사례제시 등 문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4. (준)개방형 논술 형태로 출제되는 경우 난이도↑
   (고려대, 숭실대 인문, 인하대 등)

▌자신의 견해제시 문제▐ 답안 작성 방법 주반재결

❶ 주장	• 제시문 범위 내에서 주장 선택
❷ 예상반론	• [물론~] 대립적 논점으로 반론 제시
❸ 재반론=주장	• [하지만~] 주장을 강화하는 논거로 반박
❹ 예상결과	• 수미상응 (글의 완결성) • 주장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제시 • 필요하다면 간단한 대안(방향성)도 제시

예제 (가)의 ㉠에 대하여 (나)의 '사회계약론'이 어떻게 답할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논하고, (가)의 ㉡을 (다)의 '공리주의'에 의거하여 정당화한 후 그 정당화에 대한 <u>자신의 견해</u>를 서술하시오. (1,200자)

⇩

문제조건 1	문제조건 2	문제조건 3
삼단논법 X 2 결대소결 결대소결	삼단논법 결대소결	① 주장 ② 예상반론 ③ 재반론 ④ 예상결과

유형 6 요약하기

• 요약의 원리

1. 글의 요약은 모든 글쓰기의 기본
2. 내용의 단순 요약 X → 구조의 요약 O ⇨ 구조독해
3. 독해의 기본적 원칙 – 질문하며 글 읽기 ⇨ 목표독해
   - 무엇에 대한 글인가? → 핵심어/중심 화제 파악
   - 그것이 어떻다는 것인가? → 주장/입장/정보 파악
   - 왜 그런 것인가? → 근거 파악
   -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 대안/해결책/주장 파악

▌요약 문제▐ 답안 작성 방법

공통	• 중심문장 + 부연문장 • 중심문장 : 짧고 명료하게 • 부연문장 : 글자 수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
문학 장르의 특성과 문제 조건에 따라 재구성	• 공통 : 비유•상징적 표현 → 주제의식 일반화 • 시 : 화자의 정서, 태도, 상황 고려 • 소설 : 인물, 사건, 배경 고려 / 갈등 파악
비문학 큰 틀에서 구조 파악	• 논증 구조 : 주장+근거 → 삼단논법 구성 • 비교 구조 :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 → 공기차요 구성 • 인과 구조 :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 연관성 • 병렬 구조 : 통시적, 공시적, 영역별 등

예제 1 다음 시를 5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중략)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 **답안 1 :**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생긴 것은 성북동 비둘기가 사랑과 평화까지 낳지 못하고 쫓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 **답안 2 :**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 파괴는 물론 인간성까지 파괴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예제 2 **다음 글을 100자 / 2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인간이 동물적인 존재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동물성에 더하여 이성(理性) 등 인간 고유의 능력이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인간은 스스로를 동물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현대 분자 생물학의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타의 동물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존재이다.

분자 생물학자들은 모든 생명체의 기초는 유전자라고 한다. 일부 학자들은 생명체들의 모든 특징이나 기질은 물론, 인간의 행위 방식, 심지어 성품까지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동물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길이 1㎜밖에 안 되는 미물인 선충(線蟲)과 인간 간의 유전자적 동일성은 40%에 이른다. 인간과 오랑우탄 간의 유전자적 동일성은 96.4%나 된다. 나아가 인간과 침팬지 간의 유전자적 동일성은 98.4%에 이르며, 양자 간의 차이는 겨우 1.6%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유전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거의 침팬지와 같은 존재라는 말이다.

▷ **100자 요약 :** 인간은 여타의 동물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존재이다. 모든 생명체의 기초인 유전자가 비슷하다면 유사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유전자적 동일성은 매우 높다. (103자)

▷ **200자 요약 :** 현대 분자 생물학의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여타의 동물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존재다. 분자 생물학자들은 모든 생명체의 기초는 유전자라고 한다. 즉 유전자가 유사하다면 생명체의 특성도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은 선충과 40%, 오랑우탄과 96.4%, 침팬지와 98.4%의 높은 유전자적 동일성을 보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비슷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220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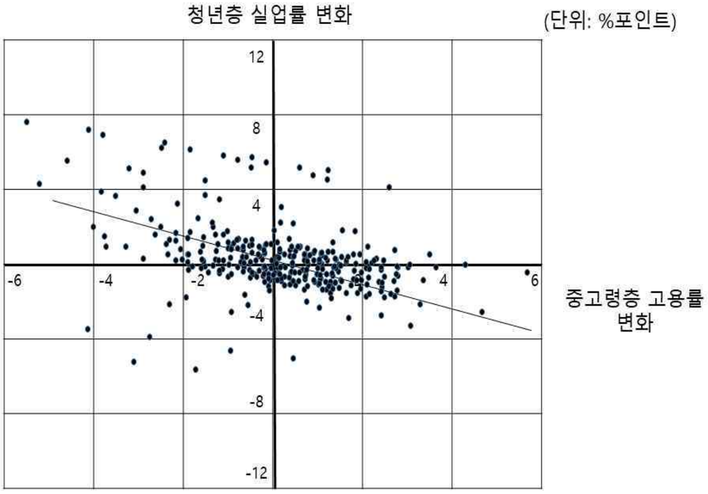
유형 7 자료해석

1. 주어진 자료는 논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만 활용한다. (자료는 대부분 소전제로 주어진다.)
2. 자료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3. 구체적 수치는 필요한 경우만 활용한다.
4. 시각 자료를 간명한 텍스트로 바꾸어준다.
5. 자료 제목, 도표의 가로•세로축, 단위, 각주 등을 꼭 확인한다.
6. 답안의 구성은 문제의 요구조건에 맞춰 융통성 있게 한다.

예제 1

연도	ⓐ 절대적 빈곤율(%)	ⓑ 상대적 빈곤율(%)	ⓒ 지니계수
2000	7.6	9.8	0.279
2003	6.1	10.6	0.270
2006	5.7	12.0	0.305
2007	5.1	12.6	0.316
2008	5.0	12.5	0.319

예제 2 중고령층 고용률 변화와 청년층 실업률 변화 관계



* 가로축은 전년 동월 대비 중고령층 고용률의 변화를, 세로축은 전년 동월 대비 청년층 실업률의 변화를 나타내며, 각 점은 1988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월별 측정치이다. 그래프에서 추정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형 1

삼단논법 연습문제 1

— 동국대 기출

문제 **제시문 등장하는 상호확증파괴의 두려움은 강요와 억지 중 어느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논술하시오.**

(200~300자)

영향력에는 강요와 억지 두 가지가 있다. 강요는 다른 행위자가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하지 않고 있던 행동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억지는 다른 행위자가 지닌 의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대결에서 군비경쟁의 상대적 안정성은 미소 양국 중 어느 누구도 제1 타격 능력(first-strike capability)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제1 타격능력과 제2 타격능력(second-strike capability)의 차이는 군비경쟁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제1 타격능력은 한 쪽이 다른 쪽을 먼저 공격해서 상대의 보복 대응 능력을 파괴시켜, 상대의 어떤 보복 대응도 '감내할' 수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제1 타격능력이 있을 때 선제공격의 유혹이 커진다. 제2 타격능력이란 상대의 선제공격을 흡수한 후, 역으로 상대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두 행위자가 모두 상대에게 막대한 파괴를 입힐 수 있는 확실한 보복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즉 제2 타격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양자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두려움으로 인해 공격을 멀리하게 된다.

5강

유형 1

삼단논법 연습문제 2

__ 경희대 기출

문제 **제시문 (나)는 오늘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공통된 경영 활동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시문 (나)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가 담고 있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500~600자)

(가)

스타벅스는 커피와 문화를 결합하여 커피에 관한 경험을 재창조한 회사이다.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가 된 하워드 슐츠는 1982년 스타벅스에 합류했다가 1987년에 스타벅스를 인수했다. 그는 단순히 최고급 커피원두를 소매로 파는 가게였던 스타벅스를 '고객이 바리스타(barista)라 불리우는 매장 점원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스타벅스를 일구어냈다. 또한 존경과 품위, 다양성의 존중, 사회와 환경에 대한 공헌 등의 원칙을 공유하는 문화를 키워나감과 동시에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프라프치노 등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적시에 선보였다. 그 결과 1987년 당시 6개 스토어에 100여명의 사원이 있던 수준의 회사를 10년만에 2,000여 개의 스토어에 25,00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켰다. 1992년에는 커피 판매 기업으로는 최초로 상장기업이 되었으며 2004년에는 5조 3천억 원의 매출과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델은 1984년 창업과 함께 컴퓨터업계 최초로 제조업체가 제작한 컴퓨터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이렉트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의 PC 판매는 생산자 중심의 관점에서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없이 생산하고 중간유통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델은 이러한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PC를 파악하고 맞춤형 PC를 직접 판매하는 모델을 창조한 것이다. 그 결과 1994년부터 7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37%를 기록하며 2001년에 세계 시장 1위의 사업

자로 등극했다. 2004년에 델은 42조 6천억 원의 매출과 3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나)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자원에서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고 그것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자원'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없다. 경제적 가치가 생기기 전까지는 모든 식물은 식물 그 자체이고, 모든 광석은 돌덩어리 일 뿐이다.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땅에서 스며 나오는 원유도,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도 자원이 아니었다. 귀찮은 존재로서 토양을 망치기만 했다. 페니실린 곰팡이도 한때는 자원이 아니라 병균일 뿐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 곰팡이 '병균'이야말로 세균학자들이 찾던, 바로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물질임을 확인함으로써 페니실린 곰팡이는 가치 있는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혁신인 것처럼 기존 자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높여 더 많은 부를 창출하도록 하는 활동도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J. B. 세이는 "기업가는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곳으로부터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동 시킨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혁신은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혁신은 기업가정신의 구체적인 기능인 것이다. 똑같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더 많은 양을 산출할 수 있는 활동이 곧 혁신이라는 뜻으로 공급측면에서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적합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제철산업의 경우 종합제철공장에서 미니밀(mini-mill : 전기로)로 이동한 것은 공급측면에서의 혁신이다. 미니밀은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설비가 필요 없다. 고철을 녹여 철강 빔이나 철근 같은 소비제품을 만들어낸다. 최종 제품도, 용도도, 고객도 똑같다. 그러나 생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즉 같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더 많은 양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혁신인 것이다.

한편 혁신을 수요측면을 강조해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혁신은 소비자들이 이제까지 느껴온 가치와 만족에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아이포드(i-Pod) 또는 디지털 카메라는 기술혁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와 만족도를 높인 혁신사례라고 할 수 있다. 헨리 루스가 1920년대에 〈타임〉, 〈라이프〉, 〈포천〉 등을 창간하여 보여준 사회적 혁신이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개발된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 유니버설보험상품(universal life insurance product)같은 금융상품의 성공적 혁신도 공급측면보다는 가치와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훨씬 설명하기 쉽다.

유형 2

비교 연습문제 1

_ 세종대 모의

문제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행복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400~500자)

(가)

목표가 명확하고 활동 결과가 바로 나타나며 과제와 실력이 균형을 이루면 사람은 정신을 체계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몰입은 정신력을 모조리 요구하므로 몰입 상태에 빠진 사람은 완전히 몰두한다. 잡념이나 불필요한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티끌만큼도 없다. 자의식은 사라지지만 자신감은 평소보다 커진다. 시간 감각에도 변화가 온다. 한 시간이 일 분처럼 흘러간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한 없이 쓸 때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일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삶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된다. 체력과 정신력이 조화롭게 집중될 때 삶은 마침내 제 스스로 힘을 얻는다.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 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몰입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느끼려면 내면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눈앞의 일을 소홀히 다루기 때문이다. 암벽을 타는 산악인이 고난도의 동작을 하면서 짬을 내어 행복감에 젖는다면 추락할지도 모른다. 까다로운 수술을 하는 외과의나 고난도의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가는 행복감을 느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지난 일을 돌아볼만한 여유를 가지면서 자신이 한 체험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했는가를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되돌아보면서 행복을 느낀다. 물론 몰입하지 않고도 행복을 맛볼 수는 있다. 고단한 몸을 눕혔을 때의 편안함과 따사로운 햇살은 행복을 불러일으킨다. 모두 소중한 감정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유형의 행복감은 형편이 안 좋아지면 눈 녹듯

사라지기에 외부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몰입에 뒤이어 오는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것이어서 우리의 의식을 그 만큼 고양시키고 성숙시킨다.

(나)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타락하기 쉽다. 그러나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라는 말이 있듯 행복을 찾은 오묘한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의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그리고 인간을 제한하는 소유물에 사로잡히면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 갇혀서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청빈의 덕이다.

논리논술1

7강

유형 2

비교 연습문제 2

_ 한국외대 기출

문제 **아래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의 핵심어와 화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가)~(마)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가)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잘하는 사람을 나는 잘 대해준다. 잘 못하는 사람 또한 나는 잘 대해준다. 그럼으로써 잘함을 얻는다. 미더운 사람을 나는 믿는다. 미덥지 않은 사람 또한 나는 믿는다. 그럼으로써 미더움을 얻는다." 관용에 대한 노자의 이러한 생각은 무위(無爲)의 사유에서 나온 것이다. 무위의 반대는 작위(作爲)이다. 작위란 타인이나 자기 바깥의 세계를 자신의 의도대로 바꾸려는 행위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자 한다면 관용의 철학자는 그를 불관용적인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 〈한겨레21〉 (2020.5.2.) 재구성

(나)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A 교수는 "최근 소년범죄는 죄질, 계획성, 잔인함, 지능성이 성인범죄 못지않다"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은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

장 2년의 소년원 송치로 처분이 종결돼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만 13세로 낮아지면 촉법소년에 대한 법적 관용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중앙SUNDAY〉(2022.11.26.) 재구성

(다) 오늘날 많은 국가는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산적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복지 제도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복지 축소에 따른 형평성 저하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복지 제도이다. 즉 소외 계층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거나 노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 의욕을 높여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이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일할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도 복지의 혜택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일할 의지를 높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고등학교 교과서『사회·문화』재구성

(라) 관용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본래의 관용을 부정하게 되는 관용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 칼 포퍼는 "만약 우리가 심지어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적 관용을 베푼다면, 만약 우리가 편협한 자들의 맹공격에 대항해 관용적 사회를 지켜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람들은 파멸할 것이고, 관용도 그들처럼 소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를 관용의 역설이라고 한다. 불관용의 태도를 관용하면 관용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며,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불관용의 태도를 관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관용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

하는 범위 안에서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착취・억압・폭력 등과 같은 보편 윤리에 어긋나거나 사회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등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 고등학교 교과서『생활과 윤리』 및
칼 포퍼,『열린 사회와 그 적들』재구성

(마) 2009년 5월 1일, 정부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대를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했다. 본래 안산시는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로 세워진 계획도시인데, 집값이 싸고 공단에 가까우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원곡동에 외국인이 몰려들면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당시 안산에 거주하던 외국인은 56개국 출신으로 3만 3천여 명에 달하여 이들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했다. 안산시는 특구 운영을 위해 다문화 인프라 구축, 다문화 의식 함양 사업, 다문화 브랜드 특화사업 등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전개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글로벌청소년센터를 통해 다문화 아동들의 복지, 건강,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안산시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 주민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의 실행과 시책 추진을 위해 외국인 인권 증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내·외국인들이 똑같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등학교『통합사회』및 〈경기일보〉(2019.4.17.) 재구성

8강

유형 3

비판◦평가 연습문제

__ 숙명여대 기출

문제 **제시문 (가)와 (다)의 입장을 비교하고, (나)에서 제시된 해석을 전제로 (가)와 (다)를 각각 평가하시오.**

(1,000±100자)

(가) 욕망은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고자,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는 욕심과 비슷한 의미로 자주 쓰이는 탐욕과는 거리가 멀다. 욕망은 남을 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탐욕의 의미가 아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이를 이루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행동강령과도 같다. 나 자신과 세상의 발전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개인의 현명한 욕심.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만 앞서는 열정뿐 아니라 강인한 의지까지 지닐 수 있어야 비로소 사는 이유와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세속적인 것들을 매우 좋아한다. 예쁘고 화려하며 즐겁고 맛있는 것들을 매우 사랑한다. 외모도 매력적이고 싶고, 화려하고 멋진 장소에서 먹고 머무르는 것을 좋아한다. 가족들에게는 좋은 차, 좋은 집을 사주고 싶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멋진 선물을 하며 즐겁게 살고 싶다. 그만큼 나는 평범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지만 이런 욕심은 항상 나를 거듭 깨우고 응원해왔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또 지치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나의 소박한 욕심은 나를 응원해주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은 곧 나를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고, 이는 점차 내 인생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욕망으로 발전해 갔다.

요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며 무소유의 미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쉽게 포기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제 단순히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면 불행의 씨앗이 된다거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행복하다는 충언은 과감히 잊자. “내가 원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냥 포기하자!” 등 소극적인 마음도 그만 지워버리자.

이제 욕망도 욕심도 크게 갖고 많이 이루자. 모든 욕심을 버리고 선비처럼 청빈하게 살 수 있다면야 무얼 더 논하겠느냐마는, 그렇지 못하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마음과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제 마음껏 욕망하자. 단, 현명하고 아름답게 욕망하자. 나를 위해 마음껏 욕망하는 것은 나 자신의 행복에도, 또 내가 속한 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아름답게 욕망한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라는 어려운 조언보다는 나와 같은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 훨씬 더 현실적이며 행복한 조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나) 행복의 성취는 일정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전제로 한다. 한 국가 내에서 보면 저소득 가구는 고소득 가구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일단 한 가정이 빈곤층에서 벗어나 중산층에 합류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보다 더욱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은 그 경계가 되는 변곡점(變曲點)이 1990년대 중반에 1인당 고작 20,000달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오늘날의 통화 가치로 환산하면 약 28,500달러에 해당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라야드(Richard Layard)는 세계적으로 국가의 행복지수는 1인당 소득이 15,000달러에 도달할 때 상승을 멈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상을 뒤엎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첫 번째는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기대치도 따라서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사치품으로 여겼던 물건이 올해에는 필수품으로 둔갑한다. 여러 차례의 연구에서 소득 증가의 35~60%가 이러한 기대치 상승효과로 상쇄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소득이 10,000달러 증가하면 그 중 3,500~6,000달러를 '필수'로 간주하게 되므로 그 부분은 더 이상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해석에서는 사회적인 비교를 원인으로 꼽는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심할수록, 소비가 증가해도 그다지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이러한 지위 효과를 매우 중시하는 존재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미국 여러 지역에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행복은 이웃의 소득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며, 그 낙폭도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른바 트레드밀(treadmill) 효과는 자신이 더욱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려도 타인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하므로 좀처럼

앞서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뜻한다.

(다) 미국 동부의 종교 공동체인 아미시(Amish)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그들 자신의 사회적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 인간 대부분은 개인적인 신분이나 지위의 상승을 추구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부러워하며 존경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회적 욕망들이 상당한 정도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그 욕망들이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선택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한다. 그런데 아미시인들은 정반대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옷을 입지는 않는다. 그들은 일치를 위해서 같은 옷을 입는다. 만일 당신이 아미시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옷을 입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미시인들의 마차는 다 똑같은 모습이다. 누구의 마차가 더 눈에 띈다든지 하는 것은 금물이기 때문이다. 아미시인이 아닌 다른 미국인들은 친구나 이웃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아미시인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더 두드러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종교적 경건함과 절제를 통한 행복을 위해 아미시인들이 욕망을 금기시하는 것은 전횡적(專橫的)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농기구 운반을 위해 헛간에서 트랙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작 원래의 목적인, 집에서 떨어져 있는 밭을 가는 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밭에서 트랙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머지않아 농장을 벗어나 시내까지 끌고 갈 것이고, 마차로 운반하기 힘든 짐들을 싣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내에 간 김에 식료품을 구입해서 싣고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보다 더 편리한 자동차를 항시 몰고 다니게 될 것이다. 점차 자동차로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이 빈번하게 되어 결국 아미시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어 놓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아미시인들은 집에 전기선을 끌어들이는 것과 전화를 놓는 것을 금지한다. 그들은 이렇게 욕망에 한계를 두는 강력한 삶의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한다.

유형 4

해결책 제시 연습문제

_ 동국대 기출

문제 **제시문 [가]와 [나]에서 기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여러 기능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서 말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극복하고 시민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500~550자)**

[가] 다양한 가치관과 지식을 갖고 있는 보통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개진하는 독립적인 생각과 의견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통합된다면, 이는 의미 있는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피터 러셀은 이를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라고 불렀다. 프랑스의 미디어 학자 피에르 레비도 최근 그의 저술에서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지성의 핑크빛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집단지성의 중요한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다. 언론의 여론조사도 실상은 시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힘 있는 소수에 의한 지식과 의견의 생산·유통의 독점을 견제하고 다수의 시민이 그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법원의 배심원 제도가 갖는 매력도 같은 것이다. 지식과 의견의 독점이 곧 권력의 독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집단지성의 가치가 분명히 크다.

[나]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new forms of collective identity. For example, studies have found that SNS can help young people who are sexually and gender diverse to meet people and learn from each other, creating the sense of belonging to a broader community. This sense of belonging and acceptance can mean that young people who may be more vulnerable to isolation such as those with

chronic illness or a disability, often remain members of an online community long after their initial impetus is gone.

Content sharing plays a major role in cultivating belonging and a sense of collective identity. Sharing written, visual or audio content on SNS that represents or portrays an individual or community experience invites others to engage and relate. Such a mode of 'sharing' and 'connection' does not require real-time communication and can also mitigate feelings of social isolation.

diverse 다양한	vulnerable 당하기 쉬운	chronic 만성의
impetus 자극	cultivate 증진하다	mitigate 완화하다

[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에서 출발한 시민 사회는 그 전개 과정에서 서로 분리된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근거해서 움직임에 따라 이기주의, 인간 소외, 계층 갈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민 공동체는 시민 사회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주의는 개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기주의로 전락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는 개별 인간들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사회적·경제적 과정의 단순한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 전체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 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경계하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격적 권리, 인격적 존엄성 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해치는 이기주의를 경계할 수 있도록 시민 공동체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유형 5

자신의 견해 연습문제

_ 한양대 기출

문제 **(가)의 ㉠에 대하여 (나)의 '사회계약론'이 어떻게 답할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논하고, (가)의 ㉡을 (다)의 '공리주의'에 의거하여 정당화한 후 그 정당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200자, 100점)**

(가) ㉠ <u>우리에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u>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의 선택은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미래에 존재할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X국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현재 X국에서 천연자원을 보존할지 써버릴지를 놓고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 천연자원을 보존한다면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하고 일상의 생활 방식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복지 수준은 자원을 써버릴 때보다 낮아지지만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현재 세대가 겪는 불편에 비해 미래 세대가 누리게 될 복지 수준은 훨씬 높을 것이다. 반면 천연자원을 대부분 써버리면 현재 세대는 편리하겠지만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은 낮아질 것인데, 이 경우 현재 세대가 누리는 복지에 비해 미래 세대가 자원 부족 때문에 겪게 될 불편은 훨씬 클 것이다. 단, 두 경우 모두 현재 세대나 미래 세대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없을 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재 세대가 자원을 보존했을 때 생겨날 미래 세대 사람들(미래 세대 A)과 대부분 써버렸을 때 생겨날 미래 세대 사람들(미래 세대 B)이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세대의 자원 정책 선택은 다양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령 현재 세대가 어떤 자원 정책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사회 직업군 비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는 누가 누구와 만나 자녀를 낳을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것이다. 결국 자원 정책의 차이가 야기한 생활양식의 변

화는 미래 세대의 구성원을 크게 바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X국에서 현재 세대가 대부분의 천연자원을 써버리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그 이유는 자원을 대부분 써버렸을 때 존재할 미래 세대 B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천연자원 부족으로 피해를 볼 미래 세대 B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세대의 그러한 자원 정책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만약 현재 세대가 자원을 보존했다면, 앞서 언급한 이유로 미래 세대 B는 존재하지 않고 미래 세대 A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가정에 의해 자원 부족으로 고생하는 미래 세대 B의 삶은 그들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 **<u>그럼에도 불구하고 X국에서 현재 세대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을 낮추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옳지 않다.</u>**

(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은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의 제정에 동의해야 하고, 이러한 규칙을 강제하는 데 필요한 힘을 지닌 국가의 창설에도 동의해야 한다. 사회계약론은 국가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도덕은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할지 규정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다른 사람도 따를 것이라는 조건하에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규칙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조건 1]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들과 축구 게임을 하던 갑이 갑자기 축구 규칙 가운데 몇 가지를 어기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은 갑이 계속 게임에 참여하려면 축구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비록 갑이 규칙을 따르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게임에 참여한 사람 누구든 축구 규칙을 준수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덕도 이와 유사하다. 여기서 게임은 사회

생활이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생산 수단, 과학적 지식, 기술,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이익을 누리며, 이런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마치 축구 게임을 하면서 재미를 얻으려면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이익을 얻으려면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조건 2] 사회계약을 맺은 사람이 약속을 준수했을 때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고, 약속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앞서 언급한 사회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규칙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생겨날 미래 세대가 특정한 누구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생겨나게 될 서로 다른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여 그 중에 더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는 미래 세대가 생겨나게 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본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최선의 결과는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최선의 결과는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의 총량에서 고통의 총량을 뺀 순수 쾌락의 총량이 가장 큰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과 고통의 총량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쾌락이나 고통과는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가령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정책이 몇몇 사람의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지만 순수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면, 공리주의는 이러한 정책이 옳다는 점을 함축한다.

유형 6

요약하기 연습문제

— 덕성여대 기출

문제 **제시문 (가)에 나타난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요약하고, 각각의 관점에 해당하는 사례를 (나), (다), (라), (마)에서 선정하여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500자±25자)

(가) 법치주의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른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 법치주의가 강조된 것은 근대 시민 혁명 이후이다. 초기의 법치주의는 법 자체의 내용과 목적보다는 의회 제정이라는 형식적인 합법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법의 제정 주체와 절차의 합법성과 같은 통치의 형식을 강조하는 법치주의가 나타났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권을 침해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법이 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와 헌법 이념에 실질적으로 부합해야 법이 정당성을 가진다는 법치주의가 강조된다. 즉 법이 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보장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경찰은 며칠 뒤 발표되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심을 당부하기 위해 3월 20일까지를 제1단계 계몽 운동 기간으로 정해 경범 정화 운동을 편다. 경범죄 위반자는 즉결 심판에 회부한다. 경찰은 앞으로 11개 항목을 특별 단속할 예정인데,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 범위 등 조심해야 할 일을 살펴본다.

제 1조 44호 : 공중의 눈에 뜨이는 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안까지 투시되는 옷을 착용하거나 또는 치부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

제 1조 49호 :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또는 미

풍양속을 해하는 저속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

『경향신문』(1973.3.9.) 수정 인용

박정희 정부는 1973년 3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여 귀를 덮을 정도로 머리가 긴 장발과 무릎 위 17cm 이상인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을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위와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가 긴 사람을 적발하여 현장에서 머리를 깎았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을 단속하였다.

(다)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였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인종 차별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러한 차별은 187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시행된 소위 「짐 크로(Jim Crow)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짐 크로법」은 공공 기관 등에서 인종을 분리하여 흑인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게 한 여러 가지 법들을 가리킨다. '짐 크로'는 어리숙한 흑인을 희화한 쇼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했다. 인종 분리와 차별을 제도화한 법들로 인해 흑인은 백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버스나 화장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조차 차별을 받았다.

흑인들은 「짐 크로법」에 따른 통치에 저항하였다. 1896년 호머 플래시(Plessy, H.)는 열차의 백인 차량에 탑승하여 흑인 차량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인종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법이 연방대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었지만, 연방 대법원은 '분리하되, 평등하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하지만 흑인들뿐 아니라 다수의 백인들도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피부색에 의해 투표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헌법의 정신이 구현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인종 차별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1964년 「시민권법」, 1965년 「투표권법」이 제정되었고, 「짐 크로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합뉴스』(2015.6.23.)

(라)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직장인,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야간 옥외 집회를 할 때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라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동아일보』(2009.9.25.)

(마) 시민 불복종은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의식적으로 위반한다.

시민 불복종은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 지지된다.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상위의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이에 위배될 때 시민 불복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정당하다고 본다.

12강 유형 7 자료 해석 연습문제

__ 건국대 기출

문제 **(가)와 (나)를 참조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가)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낱낱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 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뜰에 생기가 돌 것이다.

-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나) 좋은 논쟁이란 '상호 부딪침'이 있는 논쟁을 뜻한다. 그러자면 논점이 팽팽하게 부딪쳐야 한다.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서 만나 마치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 자신의 논리로 상대와 맞서 싸워야 한다.

논쟁이 생산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만남'과 '부딪침'에 있다.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서로 견주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유로 논쟁은 싸움 같지만 사실은 상호 이해의 장이요, 청중들에게는 즐거움과 교육의 장이다. 서로 부딪치는 지점을 논쟁 용어로는 '접점'이라고 하는데, '상호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쯤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 듯 자신의 소리만 듣고 살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동종 교배하듯 서로 동의하며 기존의 입장을 기형적으로 견고하게 다질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 편향(집단 극화)이나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소수의 여론 주도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조하면서 기존의 의견과 입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 고등학교『독서』

(다)

[도표 1]



[스위스]

스위스는 4개의 공용어와 방언이 사용되고 있으나, 지방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가 발달해 있어 갈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벨기에]

벨기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지역(플랑드르, 왈롱)으로 나뉘어 있는데, 산업과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해 두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고 언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 고등학교『세계지리』

[도표 2]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완전한 민주주의 (8.0 이상)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영국, 미국
미흡한 민주주의 (4.0~8.0 미만)	한국, 일본, 벨기에, 인도, 멕시코, 타이, 터키
권위주의 (4.0 미만)	베트남, 수단, 러시아, 중국, 북한

(이코노미스트, 2015)

[도표 3] 주요 국가 행복 지수 순위

순위	국가	지수
1	덴마크	7.526
2	스위스	7.501
3	아이슬란드	7.498
4	노르웨이	7.413
5	핀란드	7.404
6	캐나다	7.339
7	네덜란드	7.334
8	뉴질랜드	7.313
9	호주	7.291
10	스웨덴	7.104
	...	
18	벨기에	6.929
53	일본	5.921
58	대한민국	5,835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 2016)

- 고등학교『통합사회』

▌삼단논법▐ 연습 문제

예제 1. 예시답안

향단이는 (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향단이는 물가에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1]의 향단이는 제시문 (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의 선한 마음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4단으로 드러난다. 실제로 [사례1]의 향단이는 바닷가에서 혼자 위험하게 놀고 있는 어린 아이가 파도에 휩쓸릴까봐 걱정을 한다. 이는 사단 중에 측은지심, 즉 곤경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인(仁)의 마음이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진 향단이는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제 2. 예시답안

방자는 (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방자는 물가에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3]의 방자는 제시문 (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의 선한 마음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4단으로 드러난다. 실제로 [사례3]의 방자는 바닷가에서 혼자 위험하게 놀고 있는 어린 아이가 파도에 휩쓸릴까봐 걱정을 한다. 이는 사단 중에 측은지심, 즉 곤경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인(仁)의 마음이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진 방자는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제 3. 예시답안

향단이는 (다)의 입장으로 본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란 사회적 실천 활동을 통해 덕을 쌓은 사람이다. 향단이는 물가에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하는 실천 활동을 하였으므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1]의 향단이는 (다)의 입장으로 본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다)의 목적론적 윤리학에서는 인간이 추구할 궁극적 목적으로 최고 선인 행복을 설정한다.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한데 덕은 실천 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이때 실천 활동은 내재하고 있는 선이 사회적이고 공동체성으로 발현될 때 가치가 있다. 실제로 향단이는 바닷가에서 혼자 위험하게 놀고 있는 어린 아이가 파도에 휩쓸릴까봐 걱정을 하다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온다. 이는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인 내재된 선이 아이를 구하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공동체의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단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인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단이는 덕을 통한 행복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제 4. 예시답안

방자는 (다)의 입장으로 본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란 사회적 실천 활동을 통해 덕을 쌓은 사람이다. 하지만 방자는 물가에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보고도 구하는 실천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사례3]의 방자는 (다)의 입장으로 본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다)의 목적론적 윤리학에서는 인간이 추구할 궁극적 목적으로 최고 선인 행복을 설정한다.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한데 덕은 실천 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이때 실천 활동은 내재하고 있는 선이 사회적이고 공동체성으로 발현될 때 가치가 있다. 하지만, 방자는 바닷가에서 혼자 위험하게 놀고 있는 어린 아이가 파도에 휩쓸릴까봐 걱정만 할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는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인 내재된 선이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 실천 활동으로 발현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방자는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제 5. 예시답안

이몽룡은 (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선하지 않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이몽룡은 연쇄살인이라는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마음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사례2]의 이몽룡은 (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선하지 않은 사람이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의 선한 마음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4단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몽룡은 연쇄살인을 저지르고도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즉 시비지심이 없다.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

끄러운 마음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오지심도 없다. 그러므로 이몽룡은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제 6. 예시답안

이몽룡은 (나)의 입장으로 본다면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란 인간 본성의 감성적 욕망을 방임해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몽룡은 자신의 살인 충동에 따라 연쇄살인을 저질러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했으므로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2]의 이몽룡은 (나)의 입장으로 본다면 악한 사람이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인간의 타고난 감성적 욕망을 방임해 두면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으므로 후천적인 수양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실제로 이몽룡은 자신의 감성적 욕망, 즉 살인 충동에 따라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쾌감을 충족하고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선천적 본성이 통제되지 않고 방임될 경우 사회의 혼란이 발생되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몽룡은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제 7. 예시답안

이몽룡은 (다)의 입장으로 본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란 사회적 실천 활동을 통해 덕을 쌓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몽룡은 개인의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공동체를 파괴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사례2]의 이몽룡은 (다)의 입장으로 본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다)의 목적론적 윤리학에서는 인간이 추구할 궁극적 목적으로 최고 선인 행복을 설정한다.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한데 덕은 실천 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이때 실천 활동은 내재하고 있는 선이 사회적이고 공동체성으로 발현될 때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몽룡은 오직 개인의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이는 내재된 선이 아예 발현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몽룡은 살인을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낀다고 하지만, 이는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 상호확증파괴의 두려움은 억지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전제 : 억지는 다른 행위자가 지닌 의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소전제 : 상호확증파괴의 두려움은 미소 양국이 제1 타격능력은 보유하지 못했지만, 제2 타격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구체적 사실)
제2 타격능력은 상대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서로로 하여금 선제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부연 설명)

	소전제	대전제
결론	상호확증파괴의 두려움	억지 개념
	상호확증파괴의 두려움 → 양국 모두 제2타격능력만 보유 → 상대에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 → 선제공격하고자 하는 의도 실행X	억지 → 다른 행위자가 지닌 의도 실행X

◯ 선생님 예시답안

상호확증파괴의 두려움은 억지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억지는 상대방의 행위가 실행에 옮겨지기 이전에 막는 것이다. 상호확증파괴의 두려움은 미국과 소련이 모두 제2 타격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제2 타격능력이 있으면 상대방의 선제공격을 받게 되더라도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미국과 소련은 선제공격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확증파괴의 두려움은 억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264자)

◯ 선생님 예시답안 [결대소결 + 결소결]

(가)의 스타벅스는 수요측면의 혁신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에 따르면 수요측면의 혁신이란 기업가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큰 만족과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스타벅스는 단지 최고급 원두커피를 파는 가게였다. 그런데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고객이 바리스타와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었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그리고 그 결과 매출과 이익에서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즉 고객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부를 창출해 낸 것이다.

(가)의 델 역시 수요측면의 혁신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델 이전까지의 PC 판매는 고객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자 중심의 관점에서 중간유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델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수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PC를 제작한 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 결과 매출의 성장을 통해 세계 1위의 사업자가 되었다. 즉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함으로써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540자)

6강 비교 연습문제 1 예시답안

◯ 선생님 예시답안

(가)와 (나)는 모두 행복을 인간이 추구해야할 정신적 가치로 보고 있다. 행복은 외적인 환경이나 물질적인 조건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오직 내면적인 노력과 실천의 과정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두 제시문의 공통된 주장이다.

하지만 두 제시문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가)는 욕망의 추구를 통한 행복의 실현을 주장하지만, (나)는 욕망의 제거를 통한 행복의 실현을 주장한다. (가)는 인간이 적극적 목표 의식이 있을 때 몰입할 수 있고, 그 몰입의 과정이 끝난 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나)는 그러한 욕망의 추구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행복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욕망을 제거하고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안분지족의 상태가 될 때, 청빈의 덕이 실현되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장한다. (449자)

7강 비교 연습문제 2 예시답안

◯ 선생님 예시답안

제시문들은 관용의 범위에 대한 상반된 태도에 따라 무조건적 관용의 입장인 (가), (마)와 선택적 · 조건적 관용의 입장인 (나), (다), (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는 노자의 있는 그대로 대상을 인정하는 무위를 기반으로, 타인에게 조건 없는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의 안산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고려하며 내 · 외국인을 똑같이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 시행으로 조건 없는 관용을 보여준다. 반면, (나)는 촉법소년 문제를 다루며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는 선택적 관용을 설명한다. (다)는 노동을 조건으로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생산적 복지제도를 통해 관용이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는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용의 역설을 통해 관용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416자)

◯ 선생님 예시답안

(가)와 (다)는 모두 행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가)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욕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는 욕망을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욕망을 긍정적으로 파악한다. 욕망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욕망을 따르게 되면 개인은 성취를 통해 행복을 얻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면 사회의 발전은 물론 모두의 행복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다)는 욕망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에 욕망을 부정적으로 파악한다. 아미시인들은 남과 다름을 추구하는 욕망이 갈등을 낳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행복을 위해 타인과의 비교를 거부하여 동질화를 추구하고, 문명의 편리함을 경계하는 등 물질적 욕망을 억제한다.

(가)의 견해는 (나)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견해이다. (나)에 따르면 행복은 물질적 풍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대치도 높아지게 되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아지는 타인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는 기대치의 상승을 고려하지 못하고 욕망을 충족시킬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개인의 욕망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사회적 비교를 통해 누군가의 소득 증가가 타인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다)의 견해는 (나)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견해이다. (다)의 아미시인들은 편리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편리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욕망의 기대치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남들과 차이를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타인과 비슷하게 살 때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음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084자)

◯ 선생님 예시답안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시민사회는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훼손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주의는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극단적으로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SNS의 기능을 활용한다면, 시민사회의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시민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가)를 바탕으로 볼 때, SNS는 다수의 시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집단지성을 형성할 수 있다. 집단지성은 소수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 개인주의를 막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나)를 바탕으로 볼 때, SNS는 고립된 개인들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하여 사회적 개인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극단적 집단주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존엄성 훼손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SNS의 긍정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시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541자)

• [나] 번역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SNS가 사회적, 신체적 성별이 다양한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고 배우면서 보다 큰 공동체에의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소속감과 포용력은 만성 질병을 앓거나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쉽게 고립될 수도 있는 젊은이들이 (SNS의) 초기의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종종 온라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오래 남아 있도록 만들기도 한다. 정보 공유는 집단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 선생님 예시답안 1 – 공리주의 지지 입장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의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상호 이익을 위해 상호 합의한 규칙들로 도덕적 의무가 구성되고,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도덕적 의무가 성립한다. 첫째, 상호 이익을 위한 규칙 준수에 협력하기로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규칙 준수 여부에 따라 이익을 제공하거나 처벌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의 상황은 사회계약의 첫 번째 조건부터 충족할 수 없다.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간의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사회계약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미래 세대는 그 존재가 불확실하므로 사회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종류의 합의도 할 수 없으며, 도덕적 지위 역시 가질 수 없다. 또한, 그들을 잠정적인 구성원으로 가정한다 해도, 현세대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사회적 처벌을 통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도덕적 의무는 없는 것이다.

한편, 공리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있다. 공리주의는 현재의 선택에 따라 미래에 생길 잠정적인 쾌락과 고통을 계량하여, 쾌락의 총량이 높을수록 도덕적인 선택이라 판단한다. 이 때, 미래 세대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여 더 높은 복지를 발생시키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가)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된다. 왜냐하면 현세대는 짧은 기간 지속되지만, 미래세대는 생존할 기간이 훨씬 길고 누적 인구수도 훨씬 많기 때문이다. 즉, 현세대의 고통의 총량보다 미래세대의 쾌락의 총량이 더 크기 때문에 공리의 원리에 따라 현재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 선택이다.

이러한 판단은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타당한 결정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공리주의의 계량적 판단이 아니더라도 타인과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것은 인류의 직관에 부합한다. 그리고 현세대는 자원의 충분한 사용으로 과거 세대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더 큰 풍요를 위해 자원을 남용하는 것은 과도한 욕망의 추구일 뿐이다. 물론 자원 소비를 줄이게 되면 지금의 편리가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살 만한 가치가 없을 만큼 생존의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자원 정책을 펼친다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1,296자)

○ 선생님 예시답안 2 – 공리주의 비판 입장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의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상호 이익을 위해 상호 합의한 규칙들로 도덕적 의무가 구성되고,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도덕적 의무가 성립한다. 첫째, 상호 이익을 위한 규칙 준수에 협력하기로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규칙 준수 여부에 따라 이익을 제공하거나 처벌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의 상황은 사회계약의 첫 번째 조건부터 충족할 수 없다.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간의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사회계약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미래 세대는 그 존재가 불확실하므로 사회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종류의 합의도 할 수 없으며, 도덕적 지위 역시 가질 수 없다. 또한, 그들을 잠정적인 구성원으로 가정한다 해도, 현세대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사회적 처벌을 통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도덕적 의무는 없는 것이다.

한편, 공리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있다. 공리주의는 현재의 선택에 따라 미래에 생길 잠정적인 쾌락과 고통을 계량하여, 쾌락의 총량이 높을수록 도덕적인 선택이라 판단한다. 이 때, 미래 세대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여 더 높은 복지를 발생시키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가)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된다. 왜냐하면 현세대는 짧은 기간 지속되지만, 미래세대는 생존할 기간이 훨씬 길고 누적 인구수도 훨씬 많기 때문이다. 즉, 현세대의 고통의 총량보다 미래세대의 쾌락의 총량이 더 크기 때문에 공리의 원리에 따라 현재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 선택이다.

하지만, 이런 공리주의적 판단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순수 쾌락의 양을 따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제외되는 소수의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 미래 세대일 수도 있지만, 현재 세대의 약자들일 수도 있다. 실제로 쾌락의 총량만 따질 경우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간과하게 되고, 부와 가난의 대물림은 미래 세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즉, 미래세대의 쾌락을 고려해서 현재 자원을 아낀다고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현재 세대든 미래 세대는 약자에게로 집중될 것이고, 사회 전체 이익의 증가라는 명목 하에 누군가의 희생은 계속 정당화될 것이다. (1,285자)

11강 요약하기 연습문제 예시답안

○ 대학발표 예시답안

〈가〉는 법치주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법률의 절차적 합법성만 중시하는 형식적인 법치주의와 절차를 넘어 내용과 목적도 중시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제시한다. 〈나〉는 형식적인 법률의 준수만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약했던 개정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것으로 형식적인 법치주의의 사례이다. 반면 〈다〉, 〈라〉, 그리고 〈마〉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다〉는 헌법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여 흑인들의 권리를 침해한「짐 크로법」이 사라지는 과정에 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된 사례이다. 〈라〉는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법률이 학생과 직장인의 집회 참가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제시한 사례이므로 실질적인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마〉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법에 시민들이 불복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은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제시하므로 실질적인 법치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505자)

12강 자료해석 연습문제 예시답안

○ 대학발표 예시답안

[가]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이나 사물의 새로운 가치와 긍정적 모습을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는 서로 의견이 달라 부딪치는 접점이 오히려 상대에 대한 이해와 생산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도표 1]은 네 개의 언어권으로 나뉘어 있으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발전하고 있는 스위스와, 언어가 다른 두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면서 경제적 불균형과 갈등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벨기에의 대비된 상황을 보여준다. [도표2]와 [도표 3]은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과 행복 지수를 각각 제시하는데, 스위스는 이 두 지표에서 모두 최상위권인 반면 벨기에는 스위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와 [나]의 관점에서 벨기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타자의 긍정적인 면과 접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 상호 갈등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 수준이나 행복 지수 등에서 스위스에 뒤처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스위스는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법한 상황에서도 서로의 차이와 상대가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아 상생 공존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행복 지수를 성취했다고 할 수 있다. [598자]